

## 전남 서부권 '태풍' 비상...오늘 밤부터 영향

밤 9시께 목포 서남서쪽 100km 접근...지자체 비상근무  
어선 인양·피항하고 지붕·양식장 등 시설물 결박 완료

전남 동부권의 수해와 '코로나19'에 이어 제8호 태풍 '바비(BAVI)'의 길목에 들어서려는 전남 서부권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25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태풍 '바비'는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약 46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6km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현재 중심부 기압은 960hPa로 강한 중형 태풍이다. 최대풍속은 시속 140km이며 강풍 반경은 350km에 이른다.

태풍은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 신안군 가거도와 흑산도 인근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오후 9시께에는 목포 서남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태풍은 광주와 전남에 27일까지 100~300mm 많은 비와 초속 40~60m의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링링'과 2012년 '볼라벤'과 유사한 경로로 접근하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가거도와 흑산도에서는 태풍 '링링'으로 방파제 공사 현장 옹벽 50m가 유실되고, 전북과 우럭 양식장의 80%가 피해를 입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남 서부권 지자체도 태풍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로 시설물과 방조제, 교량 등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가 하면 저지대와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들의 사전 대피를 유도하고 있다.

태풍으로 피해가 반복되는 서해의 끝섬 가거도 주민들은 시설물들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결박작업을 이미 완료했다.

소형어선 20척은 크레인을 이용해 육상 적치장으로 옮겨졌으며, 낚시어선 7척과 대형어선은 목포와 진도, 흑산도항으로 피항했다. 350여 명의 주민 중 일부는 태풍을 피해 목포 등으로 이동했다.

흑산도에서는 진리와 읍동, 예리항 등의 소형어선 45척과 도고 7개소를 육상으로 인양을 마쳤다. 지난해 피해가 컸던 장도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는 25일 오전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주민들이 소형어선을 육상으로 올리고 있다.

앞바다 양식장은 시설물을 결박하고, 함석과 슬레이트 지붕 등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결박했다.

목포시는 해안가 등 저지대 침수대비 배수펌프장을 점검하고, 지난해 태풍 '링링'에 파손됐던 갯바위 해상보행교는 시설보수를 위해 남향으로 이동 결박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급상황 판단회의를 갖는 등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태풍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되고,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코로나19 여파 속 '수능 D-100'  
확~ 달라진 수능대책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1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은 코로나 방역에 행정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25일 광주시 교육청이 발표한 '수능 D-100, 2021 수능 운영 대책'은 수능·대입 주요 일정과 원서접수 요령, 부정행위 예방 대책, 진학지도 맞춤형 지원책 등 여느 때와 같은 기본 안내와 함께 올해는 '코로나19 대비 수능 방역 대책'이 더해졌다.

우선, 38개 시험장 학교에 수능일인 12월3일 전후로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시험장 당 수험생수도 24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한 교실에서 28명이 동시에 시험을 봤다.

바이러스 차단용 필수조건의 마스크는 시험시간 내내 착용해야 한다.

응시장소도 수험생 유형별로 구분해 운영된다. 일반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 내 일반시험실에서, 유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자가격리지역 시험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한다. 수능 응시자 중 자가격리지역과 확진자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된다.

응시원서 대리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거주자로 제한하되, 올해는 코로나19 자가격리지역과 확진자도 격리통지서를 제출할 경우 직계가족이 대리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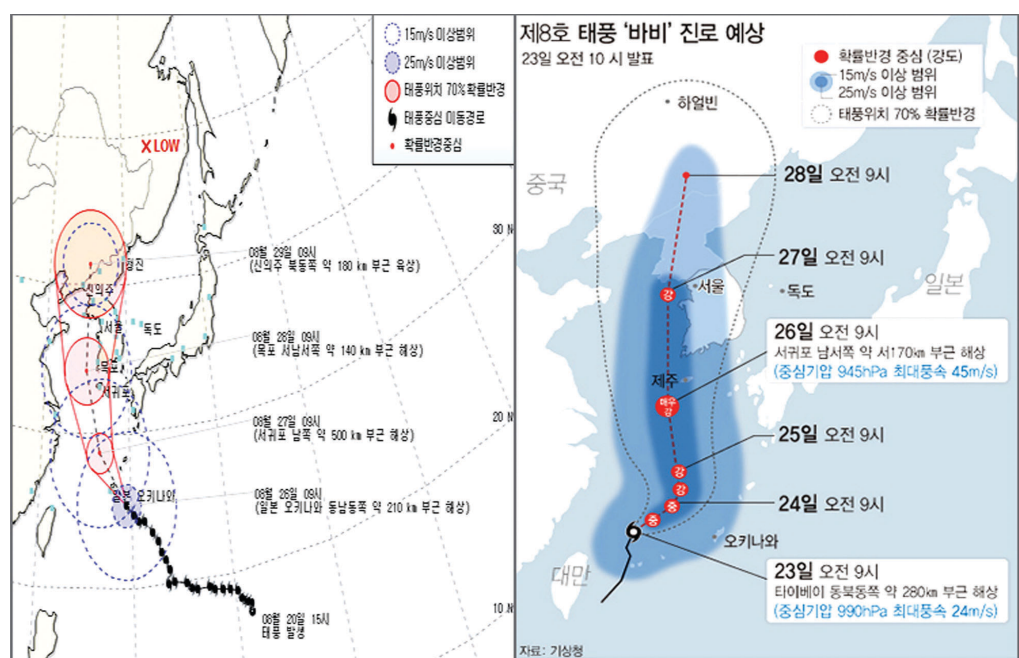
이밖에도 수능일 전후 원격수업 실시, 수험생 책상 방역 칸막이 설치, 수능 감독관 의사 배치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7개 시·도교육청이 논의 중이며 9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수능은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집중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시험실 증가로 감독관 등 업무종사자의 대폭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중·고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장위국 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이번 수능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수험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광주에서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열렬히 응원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8년 전 악몽' 역대급 태풍 볼라벤 닮은 바비...강풍 관전



왼쪽은 2012년 8월 전남을 강타한 태풍 볼라벤 진행 경로. 오른쪽은 볼라벤과 예상 경로가 유사한 제8호 태풍 바비.

강풍 반경 350km  
최대 풍속 초속 39m

8년 전 초속 53m에 달하는 역대급 강풍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BOLAVEN)'과 닮은 제8호 태풍 바비(BAVI)가 서서히 다가오면서 당시 쑥대밭이 된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2012년 8월 여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고 있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8호 태풍 바비는 태풍의 눈이 보일 정도로 강한 중형태풍으로 발달했다. 중심기압은 960hPa, 강풍의 반경은 350km에 최대 풍속은 초속 39m다.

전남 지역 지자체들이 강풍을 걱정하는 이유는 2012년 8월 내습했던 볼라벤이 안겨준 엄청난 피해 규모 때문이다.

당시 바람의 세기가 사람이 딱바로 서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몰아쳐

곳곳에서 강풍 피해가 속출했다.

배 주산지인 나주와 순천 승주 지역에선 수확을 앞둔 배 과수 낙과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해안가에선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아파트 유리창이 풍압을 못 견뎌 파손되기도 했다.

완도 지역은 해상 전북 가두리 양식장 35ha 전체가 강풍이 몰고 온 파고에 휩쓸려 파손됐다. 당시 양식장 가두리가 산 중턱까지 밀려 올라올 정도로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바람에 취약한 시설 비닐하우스 306동 3만900여㎡도 갈기갈기 찢겨 나갔다.

벼 경작지 868ha에서는 강풍에 벼가 넘어지는 도복 피해도 속출했다.

강풍을 동반한 태풍 바비 북상 소식에 농·어업인들의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완도 전북 양식어가 김모씨는 "바다 가두리 양식장은 하늘만 쳐다보는 수밖에 달리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떠밀려가지 않게 고정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저 큰 피해 없이 태풍이 통과하길 바랄뿐이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